



★ 消費者 提言

食品製造에 융통성은 없다

— 信賴할 수 있는 製品을 바라며 —

오늘날,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食品은 거개가 加工식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生産者의 良心을 믿고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네의 실정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과연, 소비자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韓國婦人會 副會長

朴 金 淳

人間의 건강과 發育, 生殖活動, 정상적인 정신 활동 상태를 保存하기 위하여는 食品이 공급되어야 함은 두말 할 나위조차 없다.

공복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始作된 食品은 飢餓食品에서 營養食品으로, 原料형태에서 加工형태로, 혹은 澱粉質 食品에서 단백질·지방質 食品으로 형태가 바뀌어 왔다,

한편, 食생활 습관도 人口의 증가와 食品製造 加工生産의 發達로 自然 食品에만 의존할 수 없고, 加工食品 또는 그 외의 양상을 달리는 식품이 개발되어 商品化 되어 왔고, 또한 食品의 流通過程과 제반 조건은 現代化를 指向, 우리의 食生活에 重要的 문젯점을 던져주고 있다.

食品이란 단순히 먹을 수만 있다고 전부 食品이 될 수는 없다, 적어도 1種 以上の 營養소가 함유되고 또 기호에 맞아야 하며, 有毒性 또는 有害物質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물론, 天然식품이건 人工식품이건, 또는 새로 開發된 宇宙식품이건, 공통으로 해당될 것이다.

그간, 우리 나라는 開發途上 國家로써 企業의 育成을 위해 特別法 等 여러 가지로 혜택을 주며 企業의 育成

을 爲해 적극적인 支援을 하여 왔다.

그러나, 食品工業에 있어서의 잘못이란 他分野와 달라 人命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융통성이 있다거나 신축성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은 물론이며, 기업인의 양심과 姿勢가 올 바라야 할것은 재론할 여지도 없는 것다 非專門家인 消費者의 立場에서 볼때, 널리 알려지고 愛用하던 食品에서 하루 아침에 有害性 不良食品으로 판명되어 알려질 때, 실망과 공포심과 분노는 쉽사리 가사지지 않는다.

기억에도 생생한 그 有害食品의 파동이 일어나기는 “통갈리트” 有害色素를 위시해서 사이클라메이트 人工 감미료, 우유의 대장균 소독 등, 굴지의 工場體制와 大量生産, 大量消費를 自他가 공인하던 業體로부터 발단이 되어, 마치 배신을 당한 것 같은 심정으로 반발과 원성이 높았던 것이다.

그밖에도 변두리나 農·漁村 장터에 無許可 食品業者들이 만들어 낸 해야 할 수 없는 그것들을 누가 막고 누가 없애야 할지!

이제; 그 精화를 위해 곳곳에서 썩터오고 多角的으로 규제를 위한 서광은 비치고 있는 듯 하다.

本 韓國婦人會에서도 불량품 축출에 앞장서 4年餘 실시해온 “不滿의” 窓口 에 접수된 不良品中 食品이 75% 나 되는 統計를 보아, 소비자 아닌 당국이나 業者를 신뢰하기에는 아직도 거리가 먼 것 같아 초조한 心情 일 뿐이다.

대부분의 인스턴트 食品의 경우, 加工過程에서 天

然食品이 가지고 있던 營養價를 손실하고 거기다 무책임한 첨가제(방부제, 색소 등)들로 有害한 食品으로 바뀌어지는 實例가 많다고 한다.

주우스類에 비타민의 함량을 視청각적으로 아낌없이 선전하던 것에 비타민의 흔적도 發見할 수 없었던 事實 등은 그냥 소홀히 듣고 스쳐 보낼 일이 아닌상 싶다.

企業의 育成은 不毛地에서 이루어 질 수 없다. 豐饒하고 신뢰할 수 있는 社會的인 바탕 위에 이룩되어야 번창은 약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因해 얻어진 利益은 마땅히 國民福利를 爲한 事業에 더욱 投資되어야 할 것이다.

食品工業은 他企業과 달라서, 우리 나라의 食生活 改善과 國民 건강을 위해 先導的인 역할을 해야 되는 重要한 分野임을 自覺해야 될 것이며, 관계 당국이나 아직 帝王이 못된 消費者에게 品質이나 가격에 있어서 비난의 화살이 튕겨지기 以前에 자체 규제를 하거나 각 업소마다(불가능하면 동질의 업소 공동)검사를 세워, 몇 몇하고 자신 만만한 상품이 제조되어 그간의 불신 풍조를 일소하는 데 努力을 아껴서는 안될 것이다.

좁 늦은 감이 있기는 하나, 뜻있는 食品業界의 규함으로 이제 그 各각적인 교량역을 할 전문자가 나오게 될 것을 진심으로 祝賀한다.

앞으로 올바른 內容이 반영되어 業者와 消費者間의 거리를 없애고, 신뢰의 여운이 길고 넓게 메아리쳐 나가기를 바란다.

先手 빼앗김은 幹部의 수치

幹部로서는 經營者나 上司로부터 “이것 큰 問題지”라든가 “자네는 이 문제를 어 고게 생각하나?”하는 式으로 先手를 잡고 質問해 오거나 注文해 온다는 것은 幹部 一生의 수치로 알아야 한다.

이것은, 自己에게 얼마나 問題의식이 缺如되어 있는가를 말해주는 現象이며, 上司의 立場으로서도 참다 못해 말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누구나 部下가 自發的으로 問題解決에 나서 기를 바라고 있다.

先手를 빼앗기고도 태연한 사람은 ‘실부름꾼型, 일 것이다. 幹部라는 것은 問

題를 만들어 내고 必要한 커뮤니케이션을 한 후, 스스로 自己가 믿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先手를 빼앗겼을 때 그 문제에 관하여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는 사람이 흔히 있다. 물론, 제기된 문제가 방향을 벗어 나는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이것에 대처 될 수 있는 문제를 내놓고, 이에 대한 腹案을 내놓는다면 좋지만, 그런 것도 없이 그저 핑계와 이유만 고집한다면, 上司는 화를 낼 것이 불림없다.

立湯을 바꾸어 自己 部下에 對하여 문제를 제기했을 때를 생각한다면, 명백히 반성될 것이다.

요컨대, 하겠다는 意慾이 없다는 결론이다. 도대체 어쩔 생인가 하고 묻고 싶어진다.

이렇게 되면 上司의 信任度는 멀어지고 앞으로 큰 일은 더욱 맡기지 않을 것이니 上司와의 관계는 이제 끝장이 나는 것 일게다.

스스로 문제 의식을 가지지는 않지만, 하라면 하는 “忠實한 실부름꾼” 型보다 오히려 못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型의 幹部는 經營者가 바라는 일에 방해꾼이라고 밖에 여가 수 없을 것이다.

이런 幹部는 鐵鎚를 使라